

연남동 차이나타운 (주간조선 2003.01.20)

주간조선 [1738 호] 2003.01.23

[서울 '속살' 옛보기] (13) 연남동 차이나타운

화교들의 상흔 담긴 '서울 속의 중국'

학교·음식점·여행사 등 상권 형성

한국의 성인들은 저마다 중국집에 얽힌 추억을 하나쯤은 가슴에 간직하고 있다. 도회지든 읍소재지 출신이든 간에 청소년기에 화교(華僑)가 운영하는 중국집에서 새어나오는 청요리 냄새에 회(蛔)가 동(動)해 보지 않은 사람도 드물 것이다. 중국집에 얽힌 그 아련한 기억을 더듬어보면 한 가지 석연치 않았던 시점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우리나라 사람들과 그렇게 사이좋게 지내던 중국집 주인들은 하나 둘 식당문을 닫고 어디론가 떠나버렸다. 어떤 이는 타이완으로 갔다고 했고 또 어떤 이는 미국으로 갔다고 한다.

▲ 연남동 차이나타운은 밤이면 홍등(紅燈)으로 붉게 채색된다.

기자의 고향 충남 청양군 읍내에도 화교가 하는 중국집이 있었다. 기자와 또래인 중국집 아이들은 서울서 공부를 하다가 방학 때만 청양에 내려와 가족과 함께 보내곤 했다. 기자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자장면 한 그릇이 60 원이었는데, 어디선가 120 원이 생긴 기자는 호기있게 친구 하나를 그 중국집에 데리고 들어가 방을 잡고는 자장면 두 그릇을 시켰다. 그런 그 중국집이 어느 순간 문을 닫았다. 어린 기자로서는 영문을 알 도리가

없었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89 번지에는 한성화교중고등학교가 있다. 교사(校
舎)와 교정은 여느 학교와 다를 바 없지만 학교 담벼락에 썩어 있는
한자어가 이곳이 화교학교임을 말해준다. 운동장을 가로질러 교사로
가다보면 양 옆에 두 개의 동상이 서 있는 게 보인다. 오른쪽은 장개석(蔣
介石)이고, 왼쪽은 손문(孫文)이다. 1 층 교무실에 들어가면 천수이벤의
초상이 걸려 있다.

한성화교중고등학교는 1948 년 명동 중국대사관 안에서 개교했다.
학생수가 늘면서 1969 년 초등학교만 명동에 남겨두고 중고등학교가
연희동으로 이사를 왔다. 개교 55 년의 역사를 가진 이 학교는 현재까지
9000 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이 학교의 교과 과정은 타이완의 그것과
똑같다. 교재도 타이완 정부에서 무상으로 지원한다. 타이완의 학교와 다른
점은 일주일에 3 시간씩 한국어를 공부한다는 사실.

●1970 년대 중반에 화교들 떠나

이 학교의 최전성기는 1974 년이었다. 전체 학생수가 2850 여명에 달했다.
1975 년부터 학생수는 줄어들기 시작해 2003 년의 학생수는 750 여명이다.
교사 수(50 명)와 학교 시설은 1974 년 그대로다. 이 학교 교무주임
소상양(簫相讓)씨는 학생수가 급격히 줄어들게 된 배경을 세 가지
원인으로 설명했다.

“ 화교들은 1970 년대 중반 한국 정부의 여러가지 차별로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한국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으로 이민을 가거나
타이완으로 갔지요. 일부는 중남미로 이민을 갔습니다. 가족계획 사업의

영향으로 자녀수가 줄어든 것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학생들의 입학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 초 우리나라 전체의 화교 인구는 12만명이 넘었지만 30년 뒤인 2002년 12월 말 현재 화교는 2만2097명이다. 30년 만에 6분의1로 줄어들었다.

▲ 화교학교 교정에는 손문 동상(사진)과 장개석 동상이 있다.좌측 사진은 학교 정문

장개석 동상과 손문 동상은 원래 중국 대사관 구내에 있었다. 1992년 8월 23일, 한국이 중국과 수교하면서 갈 곳이 없어진 이 동상들을 한성화교학교측이 연희동 교정으로 옮겨왔다. 화교학교 정문 옆에는 중국요리집 두 곳이 있다. 中國 鄉土 美食 城 (중국향토미식성)과 大福莊 (대복장)이다. 길 건너에는 화교가 운영하는 仁勇(인용)한의원이 있다.

매년 열리는 국제회의 건수, 국제적 규모의 컨벤션 센터 수, 외국인 방문수로 볼 때 서울은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잣대를 들이대면 서울은 도저히 국제적인 도시라고 하기에 낮이 붙어진다. 전세계의 인구 500만 이상되는 도시 중 차이나타운이 없는 도시는 사실상 서울이 유일하다.

1882년 임오군란(壬午軍亂) 이후 서울에 진주한 청군을 따라 주로 들어온 중국인들은 명동, 소공동, 관수동에 차이나타운을 형성했다. 1960년대까지 서울의 3대 차이나타운은 번성했으나 197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급격한 쇠락의 길을 걷게 된다. 연남동과 연희동 일대에 화교들이 속속 모여들기 시작한 것은 3대 차이나타운이 사양길에 접어든 시기와 일치한다.

정이 깊게 든 한국을 쉬 떠나지 못한 중국인들은 화교학교가 있는 연희동 일대에 모여들면서 자연스레 ‘코뮤니티’를 형성하게 되었다. 언론에서는 연남동 일대를 ‘차이나타운’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북미(北美) 대도시의 차이나타운에 비교하면 ‘새발의 피’라고 할 수 있다.

▲ 연희맛길로 이름 붙여진 차이나타운 거리 모습(우측),유기운씨는 2 대째 중국집을 운영하고 있다.

중국인이 연남동과 연희동 일대의 부동산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진양공인중개사 최안숙씨는 연남동에서만 30년간 부동산 중개업을 해오고 있다. 최씨는 화교들에게 20여건의 부동산을 중개했다고 말한다.

“중국인들의 부동산 구입이 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특이한 점은 화교들은 절대 용자를 끼지 않고 현찰로만 구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에 드는 건물이 있으면 돈을 더 주고서라도 반드시 사고 말죠.”

중국인들은 핏빛 붉은 색을 좋아한다. 연남동 차이나타운의 홍등(紅燈) 산책은 연희로 변에 있는 중국요리집 香苑(향원)에서 시작해야 한다. 25년간 서울 서부지역 최고의 청요리집으로 명성을 날렸던 香苑은 최근 경영난으로 주인이 한국인으로 바뀌었다. 그 옆은 李香芳(이향방)중국요리전문학원이다. 香苑의 옛주인 이향방씨가 운영하는 요리학원이다. 香苑에서 동교동 방향으로 조금 가다 보면 동진시장길이 나온다. 이 길 중간에 梅花(매화·대표 조동원)가 있는데, 1982년에 문을 열었다. 梅花는 연남동 차이나타운에서 역사가 오래되고 손님이 많기로

다섯손가락 안에 든다. 梅花는 4 층 건물의 1 층과 지하층을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다. 1 층 식당 계산대 옆 벽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 액자가 여러 개 걸려 있다. 그 중 한 장은 金樂園(금락원)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는 가게 앞에 일가족이 찍은 사진이다. 이 사진은 梅花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다. 사진 속에는 조동원씨의 부친(조윤근)과 조부(조진의)의 모습이 보인다. 조부는 1930 년대 말 중국 산둥성에서 한국으로 건너와 명동 차이나타운에 중국요리집 金樂園을 열었다. 부친은 가업을 연남동으로 옮겼고 현재는 조동원씨 부부가 3 대째 경영을 하고 있다.

이 식당의 실내에는 중국요리집 분위기와는 다소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동양화와 서양화 몇 점이 보인다. 조윤근·동원 부자의 작품들이다. 화교학교와 흥익대 미대를 나온 조동원씨는 서양화가로 여러 대학에 출강하고 있고, 부친 조윤근씨는 동양화가로 건물 2 층에 ‘조윤근 동양화연구실’을 운영한다. 부자는 화가로 활동하면서 가업을 잇고 있었다. 梅花 옆은 맥주집 OB 펍. 주인은 한국인이지만 손님의 70% 이상이 화교들이라고 한다. 梅花 건너편은 만두전문점 鴻福(홍복). 부부가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포장 판매를 위주로 한다. 鴻福에서 아래쪽으로 한 건물 건너면 양옥이 나온다. 2m 가 넘는 담 밖에서도 집이 좋아 보인다. 화교 소유의 이 집 대문 앞에는 ‘서울 600 년을 기념하여 잘 가꾸어진 집으로 선정된 증표입니다. 1994 년 10 월 28 일. 서울특별시장’이라는 동판이 붙어 있다.

동진시장길을 내려가면 남북으로 뻗는 동교로와 만난다. 이 동교로는 북쪽으로 가면서 두 번째 굴다리부터 연희맛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는데,

흔히 연남동 차이나타운이라고 할 때는 동교로와 연희맛길을 뜻한다. 동교로 남쪽으로 가면 百里香(백리향)과 鄉味(향미)가 나란히 붙어있다. 鄉味는 만두전문점이다. 도로에서도 주방장들이 부지런히 음식을 만드는 모습이 보인다.

● 동교로와 연희맛길이 ‘타운’ 중심로

건너편은 大華(대화)식품. 인도에 중국산 고추부대, 콩식용유, 백설식용유 등이 쌓여있다. 차이나타운 중국식당에 음식재료를 공급하는 회사다. 2층은 亞力士(아력사)여행사. 아력사는 영어 이름 Alex 를 한자로 표기한 것. 동교로 굴다리 쪽에도 鵬程(봉정)여행사라는 간판이 붙어있다. 동교로가 두 갈래로 갈라지는 지점에는 奧莉薇(올리브)가 있다. 도대체 무슨 업종이기에 奧莉薇라 했을까. 이곳은 중식당에서 식사를 한 화교들이 2 차로 노래를 부르며 술을 마시러 오는 장소다. 고향 생각하면서 중국 노래를 실컷 부를 수 있다.

1970 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의 화교들은 학교 졸업 후 대부분 대를 이어 ‘자장면 장사’밖에 할 수 없었다. 다른 직업을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도록 갖가지 제도로 규제했다. 그러나 1990 년대 들어 상황은 크게 개선되었다. 특히 1997 년 한국이 IMF 관리체제에 들어가면서 화교에 대한 재산상의 규제를 크게 완화했다고 한다.

젊은이들의 직업 선택의 폭도 넓어졌다. 전통적인 업종인 요식업 외에도 한의사(양 의사), 여행사, 중국어학원 강사, 인테리어 디자이너 등이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진출하는 분야다. 특히 중국과 타이완을 포함한 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중국어권 국가에서 한국 관광객이 늘면서

여행업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스키 관광을 오는 동남아인들이 많아 여행사를 하는 화교들은 연일 싱글벙글이다.

연희맛길로 들어설 때 처음 만나는 곳은 珍寶(진보)와 圓緣園(원연원)이다.

중국요리집 하면 허름하고 후줄근한 간판과 현관을 연상하기 쉬운데 두

집은 이런 선입견을 여지없이 깬다. 건물이 너무나 예뻐 마치 놀이시설의

중국식당을 보는 것 같다. 작년 말에 문을 연 圓緣園은 산동식

만두전문점이다. 메뉴는 단출해 五香醬肉(오향장육) 1만 2000 원, 五香蹄足

(오향족발) 1만 2000 원, 水餃(물만두) 5000 원, 蒸餃(찜만두) 5000 원, 大蝦

餃(왕새우물만두) 9000 원, 回蹄(오향족발전골) 2만원이 전부다. 물만두와

찜만두를 시켜보았다. 물만두는 모양부터가 이제까지 먹어왔던 것과는

차이가 났다. 한입 먹어보니 맛도 모양만큼이나 색달랐다. 만두속이 알찼다.

물만두 1 인분이 마치 2 인분 분량이었다. 곧이어 나온 찜만두는

모양새에서 식욕을 돋웠다. 접시에 살포시 놓여 있는 찜만두의 곡선이

신부의 버선코처럼 날렵하면서 윤기가 자르르 흘렀다.

圓緣園의 단점은 계산을 하고 주문을 받는 할머니가 기본적인 한국말조차

못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중국어를 배우는 사람에게는 공짜로 중국어

회화를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또 한 가지 불편한 점은 화장실이

없다는 사실. 이쯤되면 독자들은 기겁을 할 것이다. 아니 화장실이 없이

음식점 장사를 하다니! 이럴 수가, 중국 사람들은 일도 안보나?

이 해괴망측한 일은 곧 해답이 나온다. 화장실을 찾자 노파는 길 건너 珍

寶를 가리키며 “같은 집이에요”라고 말한다. “같은 집이에요”라는 한국말이

가장 정확하게 들렸다. 워낙 같은 말을 많이 하다보니 발음이 입에

붙었으리라. 사연인즉슨 이렇다. 圓緣園 옆은 일식집 후쿠오카. 珍寶와 圓緣園의 주인은 후쿠오카의 주인이기도 하다. 일식집으로 돈을 번 화교는 2년 전 珍寶를 열었고 지난해 말 다시 圓緣園를 냈다.

연희맛길의 중심에는 사러가쇼핑이 있다. 단층 건물에 공간은 다소 비좁지만 이 동네 사람들에게는 유서 깊은 곳이다. 이 쇼핑센터는 영어로 ‘Sahruga shopping center’로 되어 있다. 사러가쇼핑센터를 왼쪽으로 끼고 돌아서면 승합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만한 골목길이 나온다. 연희맛 2 길이다. 조금 들어가면 홍등을 매단 二品(이품)이 나온다. 梅花 조동원 사장의 외삼촌이 하는 중국요리집이다.

몇 걸음 더 옮기면 낡고 오래된 간판의 延禧館(연희관)이 나온다. 延禧館 사장 유기운씨는 2대째 연희동에서 중국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부친 유옥호씨는 1946년 중국 산둥성에서 한국으로 건너와 동아일보 뒤쪽에 있던 중국요리집 태화관에서 지배인으로 34년 간 근무했다고 한다. 태화관이 문을 닫자 잠시 쉬다가 1980년대 초 연희동에서 延禧館을 열었다. 기자가 이 延禧館을 취재 대상으로 삼은 것은 식당이 크지도 않고 간판도 눈에 잘 띄지는 않았지만 분위기가 어디서 많이 본 듯했기 때문이었다. 延禧館의 안팎은 1960~1970년대 중국집과 엇힌 아련하고 가슴 저린 기억들을 되살려내기에 충분하다. 3000원 받는 자장면도 옛날 맛 그대로였다. 유기운씨는 자녀가 둘 있는데, 큰 아이는 연희동 화교중고등학교에 다니고 작은 아이는 명동의 화교초등학교에 다닌다고 했다. 유 사장은 “요리 중에서는 전가복과 한국 해삼탕을 잘 한다”고 말했다.

사리가쇼핑센터 대각선 쪽에는 연희프라자가 있는데, 2 층에 中國苑(중국원)이 들어 있다. 조금 지나면 7 층짜리 현대식 빌딩이 나온다. 600 석 이상을 갖춘 대형 중국요리집 眞北京(진북경)이다. 眞北京과 中國苑 주인은 담영발씨. 산둥성 출신인 담 사장은 화교학교 이사장을 역임했고 현재는 중국교민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

●차이나타운은 ‘관용’의 상징

1992 년 중국과 수교를 한 이후 화교협회는 두 곳이 되었다. 담영발 사장은 중국 대륙을 대변하는 화교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 眞北京 현관 오른쪽에는 ‘中國和平統一促進聯合總會(중국화평통일촉진연합총회)’라는 자그마한 현판이 붙어 있다. 높은 眞北京 빌딩 외관에는 다음과 같은 선전문이 붙어 있는 게 보였다.

‘2002 월드컵 개최 기념. 중국 본류 음식. 사천 광둥 북경 상해 음식.’ 眞北京 맞은편 2 층은 傑利富(걸리부). 연희맛길이 끝나는 모서리에는 물만두 전문점 山東水餃大王(산동수교대왕)이 있다.

연남동 차이나타운에서 화교가 운영하는 업소를 제외하고 눈여겨봐야 할 곳은 동진시장과 카페 ‘옛 이야기 속에...’다. 동진시장은 1960~1970 년대 재래시장의 외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그 옛날 너무나 익숙한 광경이어서 마치 영화 세트장에 온 것 같다. 큰길에서 동진시장으로 들어가는 길은 여러 개인데,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만한 너비다. 아직 서울에 이런 곳이 있었나 싶을 정도다.

동진시장 건너편 건물 2 층은 중년들의 쉼터라는 모토를 내건 ‘옛 이야기 속에...’. 털보 한병천씨가 운영하는 이 카페는 바이올린, 트럼펫, 피아노,

기타(통기타, 전자, 클래식) 등이 있어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악기를 연주하며 노래를 할 수 있다. 목~토요일 밤 8시부터 10시까지는 남성중창단 '짜르트'가 나와 동요, 팝, 가요 등을 부른다. 중년들이 모처럼 마음 탁 놓고 노래 부르며 술 마실 수 있는 공간이다. 연희동에 사는 가수 서유석씨의 단골집이기도 하다.

기자가 가 본 중국식당 두 곳에는 흥미로운 글귀가 붙어 있었다. '이가 빠진 그릇의 사용은 절약하는 자세의 미덕이오니 손님 여러분의 이해를 바랍니다' '하늘 아래 해가 없는 날이라 해도 나의 점포는 문이 열려 있어야 한다. 하늘에 별이 없는 날이라 해도 나의 장부엔 매상이 있어야 한다...'

월드컵을 앞두고 서울시 당국은 연남동을 차이나타운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다. 화교들이 갖은 차별의 세월을 딛고 척박한 이 땅에 이만큼이나마 뿌리를 내린 것은 근검절약 정신과 투철한 상인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차이나타운은 관(官)이 하라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차이나타운은 더불어 사는 관용의 토양에서 저절로 빛나는 흥등이다.

(조성관 주간조선 차장대우 maple@chosun.com)

http://weekly.chosun.com/site/data/html_dir/2003/01/20/2003012077023.html